

▲ 코스피지수 1,412.13 (+42.77)

▲ 코스닥지수 517.83 (+16.85)

▲ 금리(국고채 3년) 3.90% (+0.31)

▼ 원·달러 환율 1,247.00원 (-35.00)

※수치는 8일 증가를 지난달 30일과 비교한 것임

■ 20여년만에 고향 투자 재개한 박 상 구 부산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안조선타운 성공 시킬것”

“신안조선타운 개발로 고향과 사업의 인연을 다시 맺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금융업을 기반으로 개발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난 8일 장학금 전달을 위해 광주 국제고를 방문한 박상구(86) 부산상호저축은행 명예회장은 “20여년만에 다시 고향에서 사업을 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신안조선타운 개발이 고향에서 다시 시작하는 첫 사업인만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제고 재학생 18명에게 1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박상구 부산상호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고향 발전을 위해 조선타운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2조7천억 들여 조선특구 조성

금융업 기반 개발 사업도 추진

박 회장은 금융아시아나그룹 창업자인 고 박인천회장의 장조카이자 현 박상구 회장의 사촌형이다. 셋째 숙부인 박인천 회장과 함께 금융그룹의 기반을 다진후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1981년 금호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부산에서 금융업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68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국내 저축은행업계에서 4년 연속 순위 1위를 기록한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해 전국에 5개의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은 신안조선타운의 주간사를 맡아 서남조선산업개발(주)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조선소와 배후도시 조성 등 조선특구 개발을 위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신안조선타운은 압해도 1천457만㎡(441만평) 부지에 2조7천억원의 민자를 투자해 2011년까지 조선특구

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박 회장은 “최근 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일부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조선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절반씩 조정하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고향에서 금융업을 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이란 벌리는 것보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저축은행이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대전→전주까지 내려왔다는 말로 고향에서도 멀지않아 금융업을 시작할 것임을 내비쳤다.

해외에서 먼저 시작한 금융업을 근간으로 한

투자사업이라는 모델이 국내에서도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회장은 2007년 캄보디아에 진출해 국내 금융업체 최초로 상업은행 캄코를 개점했으며 2조원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인 프놈펜 신도시 개발사업인 캄코시티를 진행중이다.

그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캄보디아에 투자했던 대다수 국내 대기업들이 철수했지만 우리는 15년을 보고 장기 투자해 현지에서 오히려 공식력이 높아가고 있다”며 사업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다.

65세때인 1988년 거의 맨손으로 부산으로 내려가 재기에 성공한 그의 성공 키워드는 신뢰와

창작연극 안중근 제작비 지원

국제고 18명에 장학금 전달도

가족경영이다. IMF 당시 인출사태때도 고객들의 신뢰로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를 믿고 따라온 직원을 끝까지 가족처럼 챙겨 위기가 때 더 강한 회사를 만들었다.

후학양성과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환원의 한 방식이다. 박 회장은 자본 90%의 절반씩을 직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지분을 출자해 만든 정산문화복지재단을 통해 수익을 사회에 되돌려 주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재단을 통해 1천200여명의 학생들에게 13억3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다음달 말 광주공원을 앞두고 있는 안중근 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 창작연극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 회장은 “마지막 꿈이 있다면 민족사관고와 같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환율효과 빼면 한국기업 실적 부진”

LG경제연구원 보고서… 달러 기준엔 日·EU보다 낮아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성장성과 수익성이 극히 부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환율에 기반 실적은 근거로 경기 회복을 예단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10일 ‘최근 글로벌 기업과 한국 기업의 경영성과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위기로 2007년, 2008년의 실적 자료가 있는 1천243개 비금융기업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은 비금융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환율이 반영된 자국 통화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07년 13.2%에서 지난해 24.3%로 약 2배 높아졌다. 지난해 원화 약세로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가 강세를 나타낸 일본 기업의

연구원은 경제전문 포브스지(誌)가 선정한 2천 개 세계적 업체 중 2007년, 2008년의 실적 자료가 있는 1천243개 비금융기업을 분석했다. 한국 기업은 비금융기업 44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환율이 반영된 자국 통화 기준으로 한국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2007년 13.2%에서 지난해 24.3%로 약 2배 높아졌다. 지난해 원화 약세로 환율이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연구가 강세를 나타낸 일본 기업의

매출증가율은 6.9%에서 0.5%로 떨어졌고 미국은 8.5%에서 7.8%로, 유로지역은 7.3%에서 5.4%로 각각 하락했다.

반면 환율 요인을 제거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역전된다. 일본의 매출증가율은 5.6%에서 14.4%로 크게 높아지고 유로지역은 17.0%에서 13.1%로 소폭 하락했으나 한국은 16.4%에서 5.1%로 급락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7년 7.2%에서 지난해 6.2%로 소폭 하락했지만, 순이익은 4.4%에서 2.1%로 ‘반토막’이 났다.

/연합뉴스



총선식 제모기 출시

필립스전자가 10일 출시한 총선식 제모기 ‘사티엘 아이스 프리미엄’을 모델들이 사용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산업용지 투기 차단 5년간 처분 못해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 시행령을 개정해 이런 규제를 도입하기로 하

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산업용지의 전매나 분할 매각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산업집적법을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예고되는 시행령은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

다. 그러나 이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의 사정상 전매 또는 분할 매각하려는 경우 취득가격에 이자와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의 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저가의 임대산업용지도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해 산업용지 가격 급등을 차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광주세무사회 윤경도 회장 취임



윤경도 광주지방세무사회 제 19대 회장이 지난 8일 광주 상록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최근 치러진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 경선없이 추대된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위상제고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로또복권

Table with columns: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팝콘복권

Table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Broker) listing properties in various area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목장용지급매' (Horse Farm Land Sale) listing a large plot of land for sale.

Large advertisement for '가발' (Wigs) by '대산프리모남녀가발' (Daesan Primo Men's and Women's Wigs), featuring before and after photos and pricing.